

우리 이번에는 어문 규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표준 발음법하고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사실 외래어나 로마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 위주가 될 텐데 이쪽 파트 잘 풀어보셨죠?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먼저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에 발음법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더 이야기하면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되어있는 니인데 애가 일단 크게 두 가지.

자음 뒤냐 아니면 단독이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음 뒤라고 이야기하면 ㄱ이나 ㅈ이나 이런 것들이.

ㅈ 나오는 경우는 없겠구나?

ㄴ이나 하늬바람 할 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발음법을 따져봤을 때

애는 어떻게 발음이 된다?

보면 이렇게 발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음 뒤의 경우에는 니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지 않고.

이거 발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힘들죠.

하늬바람,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음 뒤에는 ㄴ로 발음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단독으로 나왔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의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모양으로는 이게 나오는 경우가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발음이 기본적으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하기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 조사가 있잖아.

관형격 조사인 니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네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2음절 이후의.

어떤 특정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특정 단어가 애 같은 경우는 몇 음절짜리야?

4음절짜리잖아요.

그런데 이 4음절짜리 말고 2음절 이후.

그러니까 4음절짜리에 애도 2음절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음절이 아닌, 첫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2음절 이후로 가게 되면 애는 또 뭐로도 발음이 가능하냐?

ㅣ로도 발음이 가능하냐, 라는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외워줍시다, 이거.

그래서 지금 제시되어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의사의 호의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현재 이 단어에는 보니까

자음을 첫소리로 하고 있는 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전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에 해당할 테니까

뭐로 발음하는 것이 옳겠냐?

[니][니][니].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단어가 지금 의사라는 단어가 있고

조사 의가 있고 그다음에 호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선 이거 조사 의가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애는 뭐로도 발음할 수 있겠구나?

네로도 발음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나오죠.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1음절 의는

더 이상 발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의의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하는 거 가능하냐?

호이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냐,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오겠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ㄴ하고 ㄷ에 의는 단모음으로 발음할 때
동일한 소리로 발음되는 군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단모음.

이거는 우리가 음운표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까?

발음을 할 때 혀나 입술의 움직임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키위는 굳게회먹고 배탈에 해당하는 이렇게 10개의 단모음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ㄴ과 ㄷ이 단모음으로 발음된다는 이야기는

이것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ㄴ는 이중모음이고 ㄷ나 ㄹ는 여기에 발견되죠.

여기에 ㄷ와 ㄹ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단모음으로 발음할 때 발음이 같다고 했는데
전혀 같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었던 거죠.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리면, 이 발음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애랑 애는 어떻게 발음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애는 어떻게 발음되냐면, 애는 지금 자음 뒤잖아요.

자음 뒤는 아까 전에 무조건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고 했죠?

ㄹ로 발음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애 같은 경우에는 ㄴ잖아요.

ㄴ니까 일단 ㄴ로도 발음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다음에 ㄴ이 넘어간 거로 보면 안 되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ㄴ이 일단 넘어가면 자음 뒤에 ㄴ이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 같은 경우에는 ㄴ로도 발음되는

상황에서 연음되는 무늬.

그다음에 ㄴ이 넘어가서 단모음화 되는 무늬, 라고 하는 것도
둘 다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ㄱ과 ㄴ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조건이 있죠.

된소리되기 조건이 있고 우리가 ㄱ을 보게 되면
어간의 받침이 ㄴ, 또는 ㄴㅈ, ㅁ, 또는 ㄹ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

된소리가 되는 그 방법 중에서 사잇소리만 외워주세요.

그 외 된소리 되는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발음할 때도

자연스럽게 된소리가 섞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된소리되기 방식의 조건들은

굳이 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조건을 찾아가면 되는데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뭘 찾아야 돼요?

어간의 받침이 ㄴ, ㄴㅈ, ㅁ, ㄹㅁ인 걸 찾아야 되죠?

후보가 되는 건 1번, 2번 그리고 4번입니다.

따라서 이놈들은 발음이 될 때

신타, 안따, 담따로 발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외에 3번은 어떻게 발음되죠?

널따로 발음되죠.

그런데 애는 ㄹㅁ 뒤이기 때문에 이 ㄱ의 조건에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된소리 발음 나와요.

널따로 되긴 하지만 ㄱ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5번의 경우에는 아예 된소리되기가 안 되죠.

왜죠? 발음이 ㅇ과 ㄷ이 축약되어서 끝타로 발음이 될 테니까.

어쨌든 지금 후보는 1, 2, 4번입니다.

그다음 봤더니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결합되는

자음 ㄷ, ㅌ, ㅈ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것이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했어요.

후보였던 1번, 글썽이죠.

ㄱ이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2번, 불법.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ㄷ, ㅌ, ㅈ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맞는데 사실 불뺨도 가능하다고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4번의 경우에는 조건에 딱 들어맞는 걸 볼 수 있어요.

발전이 아니라 발편으로 발음하는데 조건을 보게 되면

한자어이고 1음절 ㄹ 받침이고 2음절이 뭐로 시작하죠?

ㄷ, ㅌ, ㅈ 중 ㅈ으로 시작하는 거죠.

정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다음 가보죠.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보기 2에

ㄱ부터 ㅁ을 발음한다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보니까 이거 나와 있죠?

줄음이 많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애는 발음이 어떻게 된다?

만턴.

축약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거를 축약이네, 라고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은 우리가 음운 변동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조건에 몇 항, 몇 조 이런 걸 따지는 건

바로 이 표준 발음법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음운 변동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이

표준 발음법 문제도 당연히 잘 풀 수밖에 없어요.

찾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ㄱ을 보면, 12항 조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2항 조건이 이거죠?

ㄴ이나 또는 ㄴㅎ, ㄹㅎ 뒤에

ㄱ이나 ㄷ이나 ㅈ이 결합될 경우에

결합되어서 거센소리 나오는 거 맞죠?

그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ㄴ은 14항 규정에 따라서, 라고 했습니다.

애 일단 발음 어떻게 될까요?

절머가 되죠.

무슨 이야기야?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연음되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애는 14항 규정을 보니까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애는 어미죠?

애는 어간, 어미니까.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되었을 때 뒤엿것만.

즉 겹받침 중에 뒤엿것만을 다음에 넘겨서 발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했는데

여기 추가로 정보를 주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겹받침.

ㅅㅅ인데 애는 발음할 때 뒤에 걸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냐, 없어.

이상하죠?

그래서 이럴 때 ㅅ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확인해보시고.

그다음 ㄷ 가볼게요.

ㄷ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애 발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판다.

위에 거랑 좀 차이가 나네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없어의 경우에는 ㅅ이 연음이 되는.

그래서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된소리로만 변화가 생기지만

애는 ㅅ이 빠지는 거 보이죠?

빠지고 그래서 뒤엣것이 된소리 발음됩니다.

애는 지금 몇 항 조항과 연결되냐 봤더니

일단 23항 한번 보세요.

받침 ㄱ, ㄷ, ㅂ해놓고 ㅂ 괄호 치고 ㅂㅅ 있죠.

그래서 여기 ㅂㅅ 있는데 이것 뒤에 연결되어있는

이 ㄷ이나 ㅂ이나 ㅅ이나 ㅈ은 된소리 발음한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23항 조항에 따라서

여기가 이거로 발음하는 건 확인을 했던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겹받침 중에 ㅅ이 빠지는 거에 대한 설명이

14항이나를 따져봤더니 14항은 연음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였잖아요.

정답은 3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즉 발음의 문제는 아닌데.

업판다로 발음하는 건 맞는데 애가 빠지는 것을

설명해주는 조항은 없었다는 겁니다.

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9항 규정에 따라서, 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표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바로 뭐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애는 받침에서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발음될 수 있는 받침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발음되는 거.

두 가지 변화를 챙겨줘야 되겠죠?

ㅅ이 ㄷ으로 변한 거 역시 음절의 끝소리를 이야기해줘야 될 테니까

4번에 나왔던 9항 조항을 다시 한번 끌어와야 되겠고

이어 나와 있는 이 ㄷ이 된소리 발음되는 것은 몇 항?

바로 23항 조항.

그래서 받침인 이 ㅅ.

여기 또를 ㄷ 괄호 치고 나와 있죠.

이 ㅅ 뒤에 ㄱ이나 ㄷ이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된소리 된다, 라는 거 설명되어있습니다.

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4번 문제는 사잇소리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글 맞춤법에서는
사이시옷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이시옷은 뭐였습니까?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 A나 B나 그 어근 중의 하나가 고유어여야 하고
앞에는 일단 당연히 받침이 없어요.

스를 딱 박아넣을 테죠.

된소리 발음이 나거나 ㄴ이 덧나는 상황일 때.

이렇게 알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표준 발음법에서는 사잇소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시옷 표기가 된 것만 사잇소리 현상을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사이시옷을 지금 없지만
애는 받침으로 발음되어서 사잇소리 현상이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 된소리되기 현상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조건 기억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합성 명사이면서 앞에는 울림소리로 끝나고
뒤에는 안울림 예사소리로 시작할 때 나오는 된소리.

이런 것들.

여러분이 사이소리의 경우에는 좀 더 넓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30항에는 뭐라고 했느냐,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의 경우, 라고 조건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사이시옷이 형태적으로 붙어있으면 고민할 거 없이
사잇소리 현상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1번에 보게 되면, 사이시옷이 올 때

뒤에 있는 그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1번이 그래요.

이렇게 더해졌습니다.

내+가 해서 냇가가 나왔는데 원래 이 내+가.

여기 지금 사이시옷이 끼 들어왔죠.

그러면 발음법에는 어떻게 처리된다고 했습니까?

뒤에 나와 있는 이 ㄱ 뒷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이시옷은 애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형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허용 범위가 있어요.

어떤 게 허용되느냐, 일단 ㅅ을 형태적으로 넣어줬다면

이걸 발음으로도 반영하는 것도 허용하겠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현재 1번 답지에 이거로 되어있지만 이렇게 나와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2번 보죠.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로야.

배+속인데 사이시옷이 딱 걸려있어요, 형태로 지금 보니까.

그러면 애는 둘 다 가능하죠.

배쪽 해서 뒤엣것만 된소리로 발음하든지

아니면 ㅅ을 음절의 끝소리에 적용해서

뽕쪽,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은 그 두 번째 것을 지금 설정해놨습니다.

다음 3번의 경우에는 윗니인데 그러면 애는 위+니.

원래는 이 위+이로 갔어야 되는 건데.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번에 맞춤법에도 봤었는데

맞춤법에 그 문제가 있었나?

이빨을 의미하는 이와 그다음에 요즘에는 몸에 안 키우죠.

옛날에 위생 절차가 안 좋았을 때는 몸에 이가 많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할 때 단독으로 쓸 때는 이라고 쓰고
또 몸에 이가 많았다, 라고 할 때도 그냥 이라고 쓰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합성어가 만들어지면서는 뒤쪽에 왔을 때
다 니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해버리기로 하는 것이 맞춤법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나라든지 아니면 뱃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니의 결합인데
어찌 됐든 그러면 애는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ㄴ이 덧나거든요.

바로 뭐예요? 합성 명사이면서 된소리 발음이 나거나
ㄴ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덧나게 되는 거
사잇소리 현상으로 보게 되는데
바로 지금 조건 중에서도 몇 번에 해당한다?
2번에 해당하는 거죠.

30항 2항.

사이시옷 뒤에 ㄴㅇ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ㄴ으로 결합되죠?

그래서 여기 ㄴ으로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표기상으로는 어떻게 쓴다?

사이시옷.

왜?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이걸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하는 이유가 ㄴ이 덧났기 때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3번의 경우에는 이게 맞는 거지 이거를 원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발음이 가능해요?

안 되는 거 알죠?

왜? ㄷ 뒤에 ㄴ 오게 되면 무조건 무슨 일 생겨.

비음화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니 이렇게 해서 이게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줘서

결국 ㄴ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ㄷ으로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 니.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발음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4번의 경우에는 나무+가지인데 사이시옷 붙어버렸네요.

그러면 발음할 때 나무까지.

역시 두 가지 가능하겠네요.

나무, 뒤엣것만 된소리 하는 방법하고

사이시옷을 ㄷ으로 반영하는 방법하고요.

그다음 5번에 보게 되면 나뭇잎의 경우에는

나무+잎인데 애는 지금 발음상 어떻게 된다?

ㄴ이 두 번 덧나겠죠.

나무닙, 그래서 애는 30항 조항 중에서 3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표기가 잘 되어있었어요.

그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표준 발음법 규정의 일부이다.

이 규정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이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23항하고 그다음에 24항이 붙어 있어요.

23항의 경우에는 된소리되기 규정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24항의 경우에는 역시 된소리네요.

그러니까 23항, 24항 전부 다 된소리인데 일단 잘 보세요.

예들을 보면 아마 차이를 알 거야.

23항에 있는 예들을 보면,

원래 된소리되기 조항은 더 있는데.

23항에 있는 예들을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국밥, 그다음에 옷고름, 옆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네들은 명사야?

용언 아니야.

그러면 어간이나 어미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24항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얹고, 더듬지.

애는 용언이죠?

얹다, 더듬다, 라고 하는 동사, 형용사와 같은 이런 용언에서 애네들이 지금 뒤에 있는 게 된소리 발음 나온다는 거 아니야.

어미의 조합이.

여기다 지금 추가적으로 다만하고 이야기했는데 다만.

이러한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된소리가 나왔어야 하지만

아닌 것들이 있다.

어떤 거 있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예로 들었어요.

왜 안 되느냐, 조건이 걸려있죠.

예를 들면 안꼬하면 이게 된소리 발음이 나와 되는데

느즈도 필요 없어.

그냥 이거랑 똑같이 사람을 얹고 할 때도 된소리 발음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왜 기이 왔을 때 된소리 발음 나와야 되는데

안끼다, 라고 안 하느냐.

조건이 뭐니까?

여기에 이 기나 이러한 기.

뒤에 해당해요?

접미사죠.

사동이나 피동을 만들기 위한 접미사가 붙어있을 때 조건 걸려있잖아요.

사동이나 피동을 만들기 위한 이런 조건이 걸려있을 때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는 안기다, 감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번 가겠습니다.

덧개는 발음 어떻게 하나, 이걸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23항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명사잖아요.

그리고 어간 어미에 대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24항에서는 조건 찾으면 안 돼요.

23항에서 조건 찾아야 되겠고.

지금 이거 표 받침이 23항에 들어가 있죠.

ㅂ에 괄호 치고 그 뒤에.

그다음에 ㄱ으로 시작하는 거 된소리 발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의 경우 애인데 그러면 이 같등은 말이야.

잘 보세요.

같등의 경우에는 24항 적용하면 안 되죠.

24항은 기본 조건이 어간과 어미의 조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애는 단독 명사이기 때문에 23항에서 찾아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애가 더해진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어란 말이야.

이걸 같하고 등하고 쫓개요?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은 확실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게 한자어인지 아니면 고유어인지

그리고 애가 어떤 한자를 쓰고 있는지 모를 거란 말이죠, 고등학생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제가 후보로 나누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풀 거 아니야.

그다음 3번 보세요.

이렇게 나왔죠?

낫설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몇 항 조항 잡아야 돼요?

24항 그러면 땡.

왜냐하면 여러분, 24항 조항은

어간과 어미의 그 결합 부분에서 된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애는 낫설다에 어간, 어미는 여기예요.

낮설까지가 어간이고 다가 어미죠.

그러면 낮설다, 낮설고, 낮설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낮설 뒤에 ㄷ이 올 때

발음 낮설따로 발음되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애를 가지고 24항을 따지면 안 되죠.

우리가 어디가 된소리가 나는 거야?

낮설하고 여기가 된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는 결합 조항에 낮이 설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애는 그 받침 ㅈ 뒤에서 ㅈ도 걸려있잖아요.

우리 23항 조항에 보게 되면 ㄷ에 괄호 치고

그 뒤에서 ㄱ이나 ㄷ이나 ㅂ이나 ㅅ이 된소리로 발음된다, 라는 거.

즉 24항은 용언의 어간, 어미 관계.

그러나 23항은 용언의 어간, 어미라는 이야기는 안 했던 말이야.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 어미면 24항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23항을 살펴보는 거고

애는 된소리 발음되는 지점은 어간, 어미 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시고 함정을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4번에 머금다.

애는 어간, 어미가 머금 뒤에 다죠?

그래서 일단 머금따로 발음이 될 텐데

애는 24항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ㅁ 뒤에 어미의 첫소리가 된소리 발음 나는 거.

그다음에 남다에 남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 접미사인데

이거 지금 다만 조항에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24항에 다만 조항에 연결되는 애는 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동, 피동, 접미사인 기이기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 안 한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답이었던 건데

이 갈등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봤었죠.

2음절 한자어의 경우에 그렇게 ㄹ 뒤에 나오는 거

된소리 발음 나오는 조항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나머지를 확인해서

애는 여기 조건에 어쨌든 안 들어가는 거 같아라고 해서

골라내는 그런 방식이 필요해요.

6번 가보도록 할게요.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발음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이 문제는 좀 자신 있게 풀었으면 좋겠어.

1번이 답이에요.

왜?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조사가 붙어있어요.

실질 형태소입니까, 형식 형태소입니까?

형식 형태소죠.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애는 음절의 끝소리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애는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연음하고 끝내야 되겠죠?

동너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뭔가가 붙어있어서 받침이 넘어갈 때

자체 변화하고 넘어갈 거냐 아니면 그냥 넘어갈 거에 대한 기준은

실질이나 아니면 형식이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실질이라고 한다면 자체 변화 후 연음해야 돼요.

선생님, 자체 변화라는 건 뭐예요?

뭐겠어요.

그 앞에서 벌어지는 자체 변화라고 하는 건

음절의 끝소리가거나 아니면 자음군 단순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 해볼까요?

딱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만들게요.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 없으니까 없는 단어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값을 칠 수 있는 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걸 선생님이 비교만 해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값을 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값, 그리고 일이 붙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친다면 애는 실질이죠.

애는 형식 형태소죠.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애는 실질이 왔을 때는 자체 변화.

그러면 이 자체 변화는 뭘 이야기한다?

ㅂㅅ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는 안 되고 자음군 단순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빠진다는 이야기죠?

ㅅ이 빠져야 돼요.

ㅅ이 빠지는 방법을 취해주고.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ㅂ 뒤에 여기는 ㄴ 첨가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 앞에는 받침이 있고 뒤애가

이, 야, 여, 요, 유일 때 ㄴ이 첨가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비음화 벌어져서 갑널.

이런 식의 발음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에 반해 애는 어떻게 되느냐,

애는 지금 애가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연습하는 거야.

아무 조건 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애가 그냥 연습이 될 경우 어떻게 된다?

ㅅ이 넘어가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ㅅ이 넘어갈 때는 된소리화 되어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갑씨,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주의하시고 나머지 것들 한번 확인해볼게요.

2번의 경우에는 꽃밭.

츠이 ㄷ으로 음절의 끝소리 처리되고

ㅂ 된소리, 그다음에 ㅌ도 음절의 끝소리.

다음 3번에 맑게.

이거 발음 좀 주의해야 돼.

막게 아니야?

원래는 ㄹ기이면 뭐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앞에 게 빠져야 됩니다.

이거 발음 어떻게 된다?

일찌가 아니라 익찌,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레고, 레몬, 루피의 경우에 뒤에 게 살아남으니까.

그런데 예외적인 거 지금 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ㄷ이나 ㄸ으로 시작했다고 하면 동일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ㄹ이 빠지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막또록, 막찌.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예외가 ㄱ으로 시작한 어미가 붙을 경우 예외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게가 붙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외가 적용되어서 어떻게 된다?

뒤에 게 빠진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된다? 말깨가 되는 것이 맞죠.

다음 4번에 보게 되면, 밭다의 경우에는 원래 ㄹㅂ 계열의 경우에는

뒤에 게 빠지고 앞에 게 발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따, 알꼬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밭다는 예외죠.

애는 무조건 ㅂ으로 갑니다.

밭따, 밭꼬.

또 외곶의 경우에는 ㅅ이 남으면 발음 이상하지 않아요?

외곶,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외골이 맞고요.

물론 이걸 외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보기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항이 있는 내용들.

이제 우리 어문 규정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벽하게 외우세요, 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외우려고 노력했을 경우에는

좀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조항들 하나하나 연결해보시기 바라요.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보게 되면, 일단 반복됐으니까 앞에 거 다 넘어가고

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에 보면, 이 단어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여덟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사 과가 붙어있는 상황인데

애는 발음을 어떻게 한다?

여덟짜로 발음해야 된대요.

우선 발음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들 테지만

25항을 적용할 내용인가를 확인해볼게요.

25항, 어간 받침 르ㅂ 뒤에, 라고 이야기했어요.

벌써 틀렸지? 왜?

이게 용언의 어간이 어디 있겠어, 수사인데.

그러면 수사인데, 체언인데 어떻게 애가 용언의 어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설명도 잘못됐고 발음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냥 여덟과예요.

그래서 비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빠져버릴 것이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가보도록 하죠.

8번을 보면 보기에 따라 표준 발음에 대해 학습했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발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1번에 색연필의 경우에.

색+연필로 합성어가 만들어졌고 앞에는 받침이 있고 뒤에가

이, 야, 여, 요, 유.

여 걸렸네요.

그래서 ㄴ이 첨가됐대요.

그런데 ㄴ이 첨가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앞에 게 비음화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발음 생년필.

이때 적용되는 조항은 ㄴ 첨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A조건.

선생님, 완전 외우셨네요?

외웠어요.

다시, 지금 A 조건 뭐라고요?

합성어 또는 파생어일 때 앞에는 받침이 있고 뒤에는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일 때예요.

이때 ㄴ이 첨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ㄴ 첨가가 반드시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A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비음화가 지금 나타난 거.

이거는 여러분 제발 B 보고.

이거 비음화 맞네.

D 보고, 이거 유음화네.

이런 건 좀 빨리 찾아야 돼요.

A는 뭐지?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돼.

이런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맨날 나오는 거니까

ㄴ 첨가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긴 하지만

B나 D를 제대로 구분 못 한다는 건 안 돼요.

그래서 B는 비음화, D는 유음화가 되는 것이고

C의 경우에는 ㄴ이 오히려 비음화가 벌어지는 좀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번의 경우에는

ㄴ 첨가와 비음화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적용 내용도 좋고 발음도 좋아요.

2번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물+약으로 합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애가 지금 어떻게 됐대요?

ㄴ이 첨가됐어요.

그러면 ㄴ이 첨가된 거니까 A는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애가 애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ㄹ과 ㄴ이 만나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ㄹ이 어지간하면 이긴다고요.

그래서 물락으로 발음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2번은 발음도 잘못됐고

적용 내용도 A, C가 아닌 A, B가 적용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A 부분에서 ㄹ 뒤에 적용되는

ㄴ은 ㄹ로 발음한다, 라는 그 조건 때문이죠?

아, B가 아니라 D.

A, D가 잡혀 있어야죠.

그래서 유음화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A, D가 적용내용, 발음도 잘못됐고.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잡는다.

이건 그냥 하나죠.

비음화, 이렇게 바뀐 거 하나밖에 없죠?

다음에 애도 ㅇ 뒤에 있는 ㄹ,

ㅁ 뒤에 있는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그래서 강능, 이거는 C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애는 어떻게 됩니까?

ㄹ하고 ㄴ이 만나서 역시 ㄹ이 이겼어요.

그다음 ㄴ하고 ㄹ이 만나서 ㄹ이 이겼어요.

그래서 물랄리로 발음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애는 유음화만 두 번 벌어집니다.

즉 D에 해당하는 것만 두 번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번 문제도 확인이 됐고요.

9번 가보도록 하죠.

표준 발음법 규정의 일부.

이를 바탕으로 보기 2를 적용합니다.

일단 발음 한번 먼저 써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야 맞다고요.

왜? 애는 형식 형태소.

자체 변화 안 해주고 넘깁니다.

연음해줘야 되겠죠? 들녀키.

다음 애는요?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ㄱ으로 대표음 처리가 돼야 되겠죠.

음절의 끝소리 벌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거 된소리 발음.

들녀또.

그다음 거.

역시나 대표음 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더 변해야 되겠네요.

ㄱ이 ㅁ을 만났기 때문에 비음화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들녕만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에 들녕이.

ㅋ은 13항에 적용되어 ㄱ으로 간다.

그러면 발음이 들녀기, 이렇게 됐어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죠.

애는 13항을 적용할 게 아니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가보도록 하죠.

10번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엄청 길어요, 문제가.

한쪽 바닥을 다 차지했어.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나는 문법 지식이 없어, 잘 몰라.

그러면 일일이 다 읽어야 돼.

읽으면 머릿속에 쪽쪽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그러면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풀겠어요?

보기의 내용 보더니 사이시옷, 사잇소리 그 이야기야?

일단 답지로 가보자, 하고 내려가요.

그래서 1번을 봤더니 빨랫돌.

이렇게 된 단어죠?

빨래+돌인데 합성 명사고 앞어근의 끝소리가 울림소리.

ㄱ로 끝났으니까.

그리고 뒤에 어근의 첫소리가 된소리 푼로 됐으니까

이때 ㅅ을 적을 수가 있는 (가)의 예가 되겠구나.

그래서 (가)를 보게 되면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

ㄷ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되죠?

앞에서 사이시옷이 오는 이유가 뭐냐,

애네들을 된소리로 발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럴 때 발음을 애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

그리고 ㅅ을 ㄷ으로 발음하는 거 인정.

이렇게 됐죠?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웃깃.

합성명사이고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의 예로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땡, 틀렸죠.

잘 보세요.

이거 사이시옷 아니잖아.

사이시옷은 원래 단어에 받침이 없었을 때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애는 오+깃입니까?

아니잖아.

이미 있는 단어인 옷이에요.

그러면 애는 들어온 게 아니야.

사이시옷이 아니야.

그냥 받침 사이지.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애 발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음절의 끝소리 적용되고 뒤에 있는 거 된소리 발음이 이렇게 되는데

애는 지금 보기 조항이 사이시옷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이기에 때문에

2번이 제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번에 이렇게 돼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애는 ㄴ이 덧나는 규정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3번 설명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설명에 어떻게 돼 있냐면,

홀이 접사이므로 (나)의 예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애는 지금 어떻게 더해준 구성이냐면, 홀+이불입니다.

우리가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건 첫째 조건이 뭐였죠?

합성 명사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홀은 접두사란 말이야.

그러면 다른 조건이 적용돼요.

그 다른 조건이 뭐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합성어이거나 파생어일 때

앞 단어에 받침이 있고 뒤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할 때는

ㄴ이 덧날 수 있다는 원리로 이렇게 완료가 된다는 거죠.

ㅌ은 ㄷ으로 대표음 처리되고 ㄴ이 첨가되는 상태에서

비음화가 벌어져 혼니불.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사잇소리는 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첫 번째 이유인 합성 명사가 아니어서.

그래서 3번 답지는 (나)의 예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왜? 지금 (가)나 (나)나 사잇소리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번 보겠습니다.

뱃머리, 애는 어떻게 되죠?

배+머리예요.

합성어죠? 합성명사고요.

그런데 애가 ㅅ이 덧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사이시옷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발음 낼 때 된소리거나 ㄴ이 덧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데

애의 경우에는 ㄴ이 덧나죠.

따라서 이놈이 (나)의 예가 되는 거고요.

다음 5번도 깨+있었어요.

깨+있었어요인데 애의 경우에는 발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애 사이시옷 들어오죠.

그러면 애는 발음할 때 어떻게 됩니까?

ㄴ이 두 번 덧나는 경우예요.

말씀드렸죠?

사잇소리 현상에는 한 번 덧나든 두 번 덧나든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그래서 4번이나 5번은 전부 다 (나)의 예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걸 정확하게 꿰뚫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시간을 적게 잡아먹지

안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려 그리고 틀릴 가능성도 높은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다, 라고 하는 단어의 표준 발음에 대해서

어느 학생이 수행한 탐구 과정인데

적절한 걸 골라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애가 발음이 된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잘 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된소리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진짜 단순한 건데.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함정 파놓는 거예요.

이 단어는 사전에 찾으려면 뭘 찾아야 돼요?

아기를 안다는 안다를 찾으려면 되잖아요.

그러면 애는 어간과 어미가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

애는 여러분, 사전에 찾으려면 뭘 찾아야 돼요?

알다를 찾아야 되는 거죠.

더하기 현재형 어미, 선어말 어미.

그리고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는 지금 어간하고 어미 상태에 받침이 ㄴ으로 끝난 거고

애는 어간하고 어미의 받침이 ㄹ로 가는 건데

ㄹ은 ㄴ이나 ㅂ이나 ㅅ이나

오가 왔을 때는 탈락하게 되고 자리에 붙죠.

그래서 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건이 달라요.

지금 보면, 그 가운데 탐구 부분에 봤을 때

표준 발음법 규정과 관련지어서 24항에 보면

어간 받침 ㄴ, ㄹ, 뒤에 결합된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ㄹ은 해당 사항에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ㄴ 뒤에 나오는 ㄹ 된소리로 처리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차이를 여러분, 뭘 발견하셔야 된단?

5번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안다는 왜 된소리 발음을 안 하는 것이냐.

여기에 있는 이 안에서의 ㄴ은 어간 받침이 아니기 때문에.

애는 어간 받침이 원래 ㄹ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차이를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정에 잘 빠질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형태만 볼 테니까.

다음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보기 조건에 있는 것들 이것도 좀 기억해볼까요?

모음에 대한 발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단모음 아까 전에 썼던

키위는 굳게회먹고 배탈까지 해서 10개인데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거는 개네를 사전 등재 순서대로

아, 에, 어, 예, 오, 에 하면서 바꿔줬을 뿐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10개인데 이 중에서

과나 귀의 경우에는 단모음로 들어가잖아요.

키위는 굳게회먹고 할 때 나오니까 단모음이긴 한데

애를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단모음은 입술의 움직임이 없게,

혀의 움직임이 없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괴롭거든요.

이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 이중모음 발음하고 있어요.

입술 짹짹 벌리면서 과, 귀, 이러면서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 발음법에 제시해준 겁니다.

원래는 단모음인데 현대인들이 워낙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라고 해놨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음을 x라고 보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는 구성의 경우에는

이 발음을 뭐로 발음하는 것도 인정한다?

개로 발음하는 것도 인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단, 예와 레는 불가해요.

즉 무조건 뭐로 발음해야 된다?

표기대로 발음.

예, 레 이래야 되는 거지 애를 예, 레로 발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 안 적을게요.

세 번째는 아까 했던 ㄱ의 발음 조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1번, 애 두 개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건

표준발음에 해당하질 않죠.

지금 조건에 해당하는 게.

이거 ㄹ랑 ㄱ을 같이 발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없단 말이야.

1번 안 돼.

아, 여기 추가된 거 하나 더 있다.

우리 국어의 표준 발음 첫 번째 조항 보게 되면

이거 말고 하나 더 들어갔네, 뒤쪽에.

특히하고, 이거.

애의 경우에는 발음표기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와 그다음에 우리 사전 보게 되면 이것도 인정을 해줘요.

그거 설명해줬습니다.

따라서 2번의 경우에 이거 금괴.

금괴의 경우에는 발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발음 또는 금괴, 라고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에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니까 설명이 틀린 거죠.

표준 발음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지혜.

애는 예, 레가 아닌 헤예요.

그러면 애는 어떻게 발음하는 거 인정?

지혜와 지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ㄱ이 기본이고 ㄱ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3번에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도 표준 발음법이다, 라고 봐줘야 되겠고

또 4번에 보게 되면, 이 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애를

비치다로 발음한다는 건 애는 문제가 없지만

애 기를 왜 ㅣ로 발음하냐 이거죠.

조건 중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기를 발음하긴 하되, 단모음처럼 발음하는 것과 이중모음처럼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고 했을 뿐이지 이걸 ㅣ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따라서 4번도 틀립니다.

그리고 5번에 총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 전에 적었던 거 기억해볼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맞다?

[의][의]가 맞다.

그런데 2음절 이후의 의.

애가 총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애는 2음절 이후에 의이기 때문에 뭐로 발음할 수도 있다?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또 애는 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로 발음하는 거 허용?

에로 발음하는 거 허용.

따라서 이걸 적용했을 때 총이에라고 발음하는 것도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죠.

(가)는 수업 게시판에 올라온 발음 관련 질문인데

답변할 때 (나)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하고 했어요.

즉 (나)는 연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죠?

너무 쉽다.

왜냐하면, 육학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나)에서 설명하는 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뭔가가 있어줘야 연음을 시키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거는 축약하고 끝나버리는 거고 애는 비음화하고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연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ㄱ, ㄷ, ㄹ, ㅁ의 경우에는

여덟 뒤에 이나 야.

다음 ㄷ은 곁+모음으로 시작하는 으로.

다음 ㄹ은 빗+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나 은.

다음 ㅁ은 밤낫 해서 낫 뒤에 으로나 또는 일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설명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발음법이 되죠.

다음 14번 부분 보도록 할게요.

(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새말 만들기 활동에서 꽃잎 표면에

이랑처럼 주름진 부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다음, 또 꽃 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애네는 어떻게 발음할 거냐, 라고 물어봤어요.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이 위에 있는 단어가

이런 상황에서의 예라면 애는 발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랑이라고 하는 건 접속조사죠.

그러니까 애와 애를 샀다고 할 때의 연결해줄 수 있는 접속조사고

그러면 애는 실질 형식, 형식 형태소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연음.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연음.

그러면 애는 발음할 때 꼬치랑 화분을 샀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츠 넘겨서.

그런데 애는 분명 (가)에 뭐라고 했어요?

꽃잎 표면에 이랑처럼 주름이 진 부분이라는 명사로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의 이랑은 실질이겠어요, 형식이겠어요?

당연히 실질이죠.

그러면 실질이면 어떤 일 벌어진다고?

자체 변화해 주고 넘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체 변화해 주고 넘기면 음절의 끝소리 적용해야 돼.

그래서 ㄷ으로 바뀌겠죠?

다음에 합성어가 됐으니까 합성어 또는 파생어일 때

앞에 받침이 있고 뒤가 이, 야, 여, 요, 유일 때 걸렸죠?

그러면 ㄴ 첨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ㄴ이 비음화.

이게 완료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애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음절의 끝소리 적용해야죠.

일단 이것도 사전에 등재되어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꼬초목, 말도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애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연음하면 되죠,

변화 한번 주고 연음하죠.

그래서 꼬도목.

그래서 이 발음과 이 발음을 찾아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저 이랑 주의하셔야 돼요.

이랑을 지금 명사로 볼 거냐 아니면 조사로 볼 거냐에 따라서

실질이나 형식이나 구분이 확 돼야 됩니다.

15번 가보도록 하죠.

이거는 조건 찾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 반복했던 것들이예요.

된소리 발음 이야기하는 거.

1번, 가슴에 품을 적에, 라고 했습니다.

애는 어디에 해당해요?

ㄱ, ㄴ, ㄷ 중에서.

어디에 된소리 나왔죠?

품을적에.

적에 된소리 나왔어요.

이거 ㄷ 조건이죠?

관형사형인 받침 ㄹ 뒤에 ㄱ이나 ㄷ이나 ㅂ이나 ㅅ이나
ㅈ이 된소리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따라서 찍에서 된소리가 걸리는 건 애는 ㄷ 조건입니다.
그러면 둘 다 ㄱ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되죠?

지금 찍 안 돼.

애는 ㄷ으로 가야 돼.

다음 2번 갑니다.

방이 넓꺼든이야 널꺼든이야?

널꺼든이 맞아요.

그러면 방이 널꺼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간인 널 뒤에 ㄱ이 된소리 나오는 건데

어간 받침 ㄹㅂ 어디 있어요?

ㄴ이죠.

어간 받침 ㄹㅂ, ㄴ 쪽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두께가 얇을지라도 이야기했는데

이러면 용언의 어간이 어디까지예요?

얇까지가 어간이고 을지라도가 하나짜리 어미예요.

그러면 ㄹㅂ 뒤에 나오는 된소리가 있으려면

여기가 된소리려야 되는데 애는 된소리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 우리 어디서 발음이 나오는 거죠?

얇을찌라도, 여기서 된소리가 나와.

즉 ㄹㅂ 받침 뒤에 나오는 된소리가 아니라

ㄹ 형태로 되어있는 것 된소리인데

이게 지금 ㄷ에 관형사형 뒤에 나오는 된소리 하나와

을로 시작하는 어미.

그러면 애는 뭐예요?

을로 시작하는 어미가 되는 거야, 하나짜리.

이때 어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에 준한다는 이야기는 앞서 설명했던 거랑

같은 방식에 발음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된소리로 가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죠.

띄어 쓰지 않아도, 알겠죠?

우선은 여기에 있는 이걸 뗄 수가 없어요.

이건 떼는 단어가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ㄴ 형태라고 하면 고민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무슨 설명 하려고 했었냐면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는 의존명사고 애는 ㄴ하고 지가 전부 다

하나의 어미로 처리되기 때문에 뜻에 따라 좀 달라요.

저 ㄴ지라고 하는, 여기 ㄴ하고 지를 띄어 쓰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이렇게 ㄴ로 시작하는,

또 을로 시작하는 형태의 어미 구성도 역시

관형어 형태에서 수식 받을 때 된소리 발음되는 거랑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의 경우 넓거든의 경우에는 이걸 ㄴ이 맞는데

얇을지라도에서는 주의하셔야 돼요.

애가 ㄷ으로 걸린다는 겁니다.

다음 3번 가보죠.

신을 신졌네요예요.

졌에서 된소리 나옵니다.

그러면 애는 어간 ㄴ 뒤에 나오는 된소리 ㄱ이니까

ㄱ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땅을 밟찌도,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ㄴㅂ 뒤에 나오는 된소리려야 되고 이때는 ㄴ이 걸리죠.

그래서 모두 ㄷ이라고 했는데 ㄷ 하나도 안 잡혀요.

다음 4번, 남들이 비웃을지언정이라고 했는데

비웃을찌언정이죠?

그러면 애는 비웃 어간에 을찌언정이라는 어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애는 어디? ㄷ에 해당하는 거고요.

따라서 ㄱ 안 되죠.

편지를 훔쩐, ㄴㅌ 뒤에 나오는 된소리니까

애는 ㄴ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ㄱ이 아닌 ㄴ으로 가줘야 돼요.

5번, 물건을 언찌만입니다.

그러면 ㄴ지 뒤에 나오는 된소리.

어간 ㄴ지 뒤에 나오는 된소리 ㄱ이죠?

그다음 앓을수록은 앓다에서 어간 앓에 을수록 어미예요.

그러면 역시 을수록 하고 된소리가 나온 거니까

르로 시작하는 어미.

바로 ㄴ에 해당하는 조건.

둘 다 맞춰준 건 정답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 보기에 표준 발음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은?

1번, 같이 걷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 구개음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걷다에 같이는 ㄱ에 따라서, 라고 이야기했는데

ㄱ이 아니라 애는 ㄴ 조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헛갈리게 해주고 있네요.

조건을 잘 보세요.

ㄴ 또는 ㄷ 뒤에 조사예요.

조사의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 예로 받이죠?

받이라고 하는 명사에 이.

그래서 받이 크다 할 때 이런 방식이래요.

그다음 ㄴ은 ㄴ/ㄷ이 받침인데 더하기 접미사 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애가 미달이.

밀다, 단다 더하기 뭐예요? 이, 라고 하는 명사화 접미사 결합된 거죠?

다음에 받침 ㄴ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된 경우에

그래서 합쳐서 티가 만들어지는 축약이 벌어졌을 때 이걸 치로 처리하겠단다.

문다에 사동 접미사죠, 여기서는? 문히다.

이거 결합되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1번에 같이 걸어요, 라고 할 때 같이 이때의 이가 조사 이 아니죠?

뭘니까?

부사화 접미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애는 ㄴ 조건.

다음 2번, 술이나 냄비 할 때의

그 술이나에서의 이나는 조사로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ㄱ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죠.

정답이네요.

다음 3번, 그것은 팔이다, 라고 할 때 이다는 서술격 조사죠?

따라서 ㄱ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4번, 자전거에 받히다, 라고 했으니까

ㄷ 뒤에 히 들어가는 경우죠?

애는 ㄷ.

다음 5번에 우표를 붙이다, 라고 했어요.

우표를 붙이다에 붙다, 그리고 이는 사동 접미사죠?

따라서 ㉠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번 문제는 발음은 다 똑같아.

발음은 잘 맞는데 뭐의 문제다?

지금 선택을 잘못된 거.

지워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가보도록 하죠.

17번에 표준발음법.

역시나 모음으로 되는 놈들.

이렇게 발음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고 있는데

여기다 적용을 더 해볼게요.

지금 17번인데 일단 다만 2 예, 례 봤습니다.

다음 다만 3하고 다만 4는 ㄴ의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이미 공부했습니다.

추가되는 건 바로 다만 1부분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예요.

용언의 축약형에서 만들어지는 저, 쯤, 처의 경우에는

저, 쯤, 처로 발음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로만.

이것도 발음한다가 아니라 이거로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 우산을 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애는 우산을 펴, 이렇게 발음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돼요.

그냥 애는 그 형태와 똑같이 그냥 펴, 라고 발음해야 옳아요.

즉 이중모음 표시이기 때문에 확실히 펴, 이렇게 발음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애네들을 발음할 때 내가 너한테 저.

자꾸 살이 찌, 그다음에 어디쳐 나를 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네는 단모음으로 내가 저한테 저, 자꾸 살이 찌, 어디서 나를 쳐.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에요.

저, 찌, 쳐.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조건 중에 하나 걸려들어가요.

이거는 1음절로만 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다쳐 같은 경우도 다치다에서 어가 붙어서

애가 축약형 다쳐가 됐을 때도 발음은 다쳐.

이렇게 단모음으로 처리해줘야 돼요.

꼭 애만 있는 게 아니라 합쳐진 단어일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ㄱ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가지어야.

가지다+어야인데 이거 축약돼서 가져야, 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음을 할 때는 애를 어떻게 발음한다?

저로 발음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져야, 이리지 않고 가져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ㄴ, 협의.

이거는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꼭 지금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만 갈 필요는 없어요.

이거 두 가지 발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뭐냐하면,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의의 경우에는 이로 발음하는 게 가능하다.

따라서 ㅂ이 넘어가는 거로만 그냥 끝내는 경우인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의로 나오는 건 이로 발음하는 게 가능하다 이 상태고.

그다음에 그냥 의로 발음할 때

ㅂ이 그냥 넘어간 거로 마무리짓자, 라고 하면

이 발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지에는 애가 있잖아요?

애가 나와도 틀리지 않아요.

다음에 ㄷ의 경우에는 틀렸죠.

왜? 아까 전에 쓴 것처럼 이런 단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ㄴ의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게 발음한다?

이로 발음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애는 흐이망.

여기 써있는 대로 흐이망, 이러면 힘들어요, 발음이.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지혜, 이 내용이었죠?

예나 례가 아닌 혜이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

즉 써 있는 건 지혜로 되어있지만, 지혜 해도 틀리진 않아요.

5번 ㅁ의 경우에는 우리의.

조사 의이기 때문에 이때는 의나 예나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다음 18번, 표준 발음법 중 된소리되기.

이제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게 된소리되기의 조건들입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게 한자어에서 ㄹ 뒤 된소리거든요.

그래서 한 다섯 개 조항들이 표준발음법에 배치가 되어있고

여기에서 사잇소리 된소리는 또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건 적용해보면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닥에 앉을수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앉을수록, 앉 어간에 을수록 어미죠?

그러면 이때 수에 된소리 발음 나오는 것은

바로 ㄹ 조건에 해당하는 거지 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서 해봤기 때문에 적용한 문제 넘어갔고요.

이제 로마자와 외래어 표기법 쪽에 있는 문제 3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외래어가 있긴 했었는데 참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자 위주 3문제인데 먼저 19번 가보도록 해요.

로마자는 우리의 자모를 어떠한 로마자로 1:1로 연결 짓느냐는

그거는 외우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보세요.

ㄱ이나 ㄷ이나 ㅂ 같은 경우는 바다가, 파열음 아납니까?

그런데 애네들은 초성에 올 수도 있고 종성에 올 수도 있을 텐데

초성에 올 때와 종성에 올 때 로마자 표기가 다르다는 거.

초성에 올 때는 강남스타일 했을 때 강, g로 가는 거고요.

받침에 있을 때는 k로 가는.

그러면 한번 센스 있게 ㄷ은 뭐로 가겠습니까?

초성에 있을 때는 d, 동대문.

받침에 있을 때는 t.

ㅂ은 초성에 있을 때는 b, 종성에 있을 때는 p로 가는 거.

이런 정도는 우리 알 수 있겠죠.

이런 거 1:1 대응시킬 때 좀 기억해두시고

그다음에 ㄹ의 경우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ㄹ의 경우는 세 가지의 형태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초성으로 가 있다, 라고 할 때는 r로 처리가 되고요.

종성으로 가 있을 때는 l로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받침에 ㄹ이 있고 초성에 연달아 ㄹ, ㄹ이 나오면

애는 ㄹ 처리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된소리 표기가 원래 있었던 걸 표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령 꽃, 이러한 단어는 발음 변화는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발음 변화를 인정해서 우리는 표기를 해줄 텐데

이걸 로마자로 표기할 때 된소리 표기하지 말라면서요?

아니요, 된소리를 표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된소리 아니었다가 된소리가 되는 걸 표기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가령 애를 낙똥강이라고 우리가 발음한다고 해서

여기를 똥으로 표기하지 말라는 뜻인 거지

원래 ㄱ이었던 건 표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애는 로마자로 만약에 표기하게 되면

이 ㄱ이 된소리 표기가 됐을 때는 초성 **g**라면.

이건 좀 다르게 **kk**.

ㄷ은 **tt**, ㅃ은 **pp**.

이렇게 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애는 **kk**, 이렇게 가고

ㄴ에 해당하는 로마자 **o**.

그다음에 ㄷ이 받침에 있을 때는 뭐라고 했죠? **t**.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된소리되기는 반영 안 한다는 건 이런 걸 반영하지 말라는 거고요.

다음에 고유명사는 당연히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어줘야 되겠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 고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당연히 나라의 명이기 때문에 애는 대문자로 처음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G** 잡아주고.

그다음 **o** 잡아주고, ㄹ입니다.

초성에 있는 **r**이에요.

그다음에 ㅋ의 경우.

우리 문제, 모음은 좀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줬는데 그래서 이거로 판별하기 문제를 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줘야 되는 건 어쨌든 고려해서 수정 전이나 수정 후나

이건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딱 지금 봤을 때 소문자 g를 대문자 G로 바꾼 것.

그다음에 l을 r로 바꾼 것.

뭐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 조항 r하고 그다음에 n을 반영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해의 경우도 초성이 b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B로 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꿔줬어요.

P가 아니라 B라고 바꿔줬고요.

그다음에 a, 받침 r이기 때문에 l로 가줘야 되죠.

그래서 r이었던 거를 l로 바꿔준 거 맞고.

나머지 해는 이렇게 써줍니다.

백제.

애는 발음이 백제로 나긴 하나 이건 된소리 발음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영 안 하고 이대로 써주라는 이야기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역시 대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게 되고요.

그다음 받침 ㄱ k로 처리되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런 거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쓰면 됩니까?

제주 여러분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셔도 좋아요.

서울 어떻게 쓰죠?

그러면 서에 해당하는 거, 어에 해당하는 게 여기 eo구나.

그다음에 우에 해당하는 게 u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쓰는 방법 아셔도 좋아요.

대구 어떻게 써야 됩니까?

Dae, 그러니까 ㅐ는 이거구나.

gu,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주할 때 이 ㅐ가를 이거예요.

그래서 백제할 때 똑같이 적용하셔야죠.

그다음에 신라의 경우 한번 보세요.

애가 유음화가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라로 발음되는데 그러면 ㄹ, ㄹ을 반영해주는 이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Sill이 처리됩니다.

그리고 ㅏ에 해당하는 a.

이렇게 처리되는 거.

그다음 옥저.

된소리 발음이 나왔는데 그 된소리는 반영 안 하고 이걸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Okje,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조항들 잘 맞춰줬는지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승례문의 ㄹ은 예로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e로 적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승례문의 ㄹ을 왜 예로 발음해야 됩니까?

우리 표준 발음법 2장 5항에 다만 2, 아까 봤던 것처럼

예와 ㄹ을 제외한 예의 경우에 예로도 발음한다고 했었던 그 조항 때문이죠?

그러면 승례문에서의 ㄹ은 무조건 ㄹ로 가야 돼요.

그래서 승례문.

그래서 ㄹ에 해당하는 발음을 찾아야 되는데

ㅐ에 해당하는 발음이 ye였죠?

지금 밑에 단모음이 아닌 이중모음입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

2번, 도예촌 할 때의 예는 예로도 발음할 수 있으므로, 틀렸죠.

예로 발음 못 하는 거예요.

예나 ㄹ은 단모음으로 처리 못 한다고 우리 다만 2 조항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3번 가보도록 하죠.

퇴계원 할 때 계는 예와 례가 아닌 거죠.

따라서 이 퇴계원 할 때의 계는 이렇게도 발음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발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며

이걸 로마자로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겠다?

ㄱ에 해당하는 거 나오고 그다음에 ㄱ에 해당하는 gye.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예로 발음해야 하므로, 라고 했는데 일단 문제가 없어요.

보세요.

퇴계원에서의 계는 예, 례 이외에 예여서

예로 발음해야 하므로, 라고 되어있었는데

예로 발음해야 하므로도 좀 이상해.

그런데 예로도 발음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애로 발음하거나 애로 발음하거나 문제가 없는데

애는 3번이 왜 틀렸겠어.

그러면 애로 발음해야 하므로, 그러면 뭐로 표시한다?

ye로 표시한다 했어야지.

아니면 반대로 애로 발음해야 하므로 애로 표시한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런데 섞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죠.

다음 5번에 보게 되면 충의사에서 의는 ui가 원래 맞아.

그러니까 원래 충의사의 경우에는 1음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의이기 때문에

애는 두 가지 발음할 수 있다고 했죠?

의로 발음하거나 아니면 이로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음할 때 로마자 표기는 i,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로마자 ui인데

지금 붙임1을 보게 되면 의의 경우에는 이로 발음이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안 적겠다.

무조건 ui로 적겠다고 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고.

5번에 보게 되면 광희문의 경우에는 역시 자음을 가지고 있는

광희할 때 이 희는 자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의이기 때문에

발음법으로는 이렇게 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나 붙임1의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발음 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써줘야 된다?

ui를 반드시 챙겨주겠다, 라고 하는 거였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21번 보기에 ㄱ부터 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갑니다.

ㄱ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구개음화 벌어졌죠.

땀받이 일어났고 로마자 표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 땀받이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가 ㄱ에 같이에서도 벌어졌고

로마자 표기에도 그대로 반영을 해줬어요.

2번 답지 왜 틀렸을까요?

ㄴ에서 일어나는 음운변동은 된소리되기입니다.

된소리되기는 삭제에서도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자 표기에 반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지금 된소리 발음 처리됐으면 tta.

즉 japtta, 이랬어야 되는데

된소리는 로마자에 표기 반영 안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3번 가겠습니다.

ㄷ에서 일어나는 음운변동은 축약이죠.

노치라고 하는 축약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약 현상이 (다), (라)에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죠.

땡.

(다), (라)는 탈락만 벌어지니까.

다음 4번 보겠습니다.

ㄹ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뭐예요?

ㄴ 첨가입니다.

한여름에서도 ㄴ 첨가 일어났어요.

이제 로마자 표기를 보셔야 되는데

로마자 표기에 맨입이 반영이 되었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반영이 됐죠.

왜냐하면 받침에 있는 ㄴ은 n으로,

또 그다음 2음절에 있는 ㄴ도 n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4번 답지에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이 안 됐다고 되어있어요.

틀렸네요.

5번 가겠습니다.

ㄹ에서 일어나는 건 백미, 즉 비음화고 밥물, 역시 비음화입니다.

여기까지 좋고.

또 로마자 표기에 반영이 됐나 안 됐나.

지금 발음이 백미 그대로 받침 처리 ng.

받침 ㅇ을 ng로 처리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로마자 표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구성을 보시면,

이 로마자 표기는 발음법과 같이 연결 지어서 문제로 내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고전 문법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현대 문법 파트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현대 문법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여러분도 풀어봤고 고민되는 문제를 선생님이 그냥 다시 들어봤고

그런데 고전 문법 부분은 선생님이.

그래요, 현대 문법은 범위가 100이다 그러면 100을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고전 문법이 범위가 100이다.

그런데 이걸 다 내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이걸 다 배운다, 라고 하면

이거는 교원 시험 볼 때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가르쳐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지치거나 힘들 수밖에 없는 단원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을 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고전에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가르치긴 했었습니다.

안 나온 것까지 많이 가르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좀 빈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문제를 통해서는 차근차근

더 설명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고전 문법 부분인데

한 문제, 한 문제를 여러분 풀어보시고

거기에 적용되는 고전 문법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문법의 경우에는 정말 바쁘게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 왜 이렇게 불친절해?

나 잘 모르는데.

그런데 중간중간 이야기하잖아, 강의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고전 문법은 그거보다는 좀

차근차근 설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개념 같은 거.

마치겠습니다.